

#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유치

## 임실군, 통합설명회 개최 추진단·액션그룹 구성

임실군이 2019년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일자리 등 문제 등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농촌에 활력을 주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임실군은 이 사업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각오로 발 빠른 준비작업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발전방안 토론회를 가진 데 이어 이달 11일에는 군청 농민 교육장에서 임실군과 (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대표 최기술)와 공동 주관으로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심 민 군수가 직접 참석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사업 선정 필요성과 강력한 유치를 지지를 피력했다. 설명회에는 심 군수를 포함한 관내 추진주체 민간 조직과 지

역 활동가, 관내 마을기업, 행정협의회 등 8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추진 개요와 임실군 추진 방향, 그리고 지난 토론회 때 의논되었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됐다. 액션그룹 등 추진단에 참여할 의향서도 함께 접수 받았다.

이번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이 그 핵심이다.

따라서 군은 (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많은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군에서 진행 중인 2019~2023 임실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한 미래농업 발전사업도 함께 제시할 전망이다.

군은 이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임실N치즈 카페를 대도시권까지 확대하여 농특산물 판매망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저온저장고 신축과 함

께 로컬푸드 스테이션과 연계한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등 지역단위 먹거리 플랜과도 연계한 임실형 지역푸드 시스템도 구축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심 민 군수는 이날 설명회에 앞서 "임실군의 농업 발전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농정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활동조직 관계자 분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강한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이번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최기술 대표는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 인력이나 유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 등 영세 법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우리 민간조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주도적으로 추진단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친환경화장품 대표도시 도약

남원시는 시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중장기 지역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 화장품산업이 지난해 국 도비 187억원(지식산업센터 160억, 원료생산시설 27억)을 확보하며 산업인프라 구축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천연물 화장품원료생산시설은 원료의 추출과 농축, 정제 발효 건조 포장 시스템을 갖춘 생산시설로, 준공 후 유럽화장품원료협회(EFICI)의 화장품 원료GMP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화장품 산업 인프라 조성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저식산업센터를 2022년 준공해 30~40여 명세 소규모 창업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가 준공되면 화장품 제조 판매업, 원료기업, 국내 주요기업의



남원 화장품 집적화단지 조감도.

부설연구소 및 현지사무소를 유치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며, 가시적인 성과로, 2019년 1월 현재 12개 화장품기업이 운영 중이며 2018년 매출액 198억원과 고용 128명을 기록했다.

남원시에서는 기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으로 20명을 취업시켜 기업지원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화장품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서울 남원장학숙 신규 입학생 모집

남원시가 오는 2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19년 서울소재 남원장학숙 신규 입학생 34명을 선발해 2월 13일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제 이상의 고등교육법 상 대학(교)대학원에 입학예정인 신

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부·모·학생 중 한명이상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입사지원이 가능하다.

1순위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이고, 2순위는 관내 초·중학교 졸업자 중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 3순위는 관내

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자이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자녀, 소년소녀가정의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2급 이상 장애인 자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특례가점 3점을 부여한다. 2월 중순까지 생활할 수 있으며, 입사비 7만원과 매월 사용료 15만원을 입사시에 납부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순창군 남산마을이 문화적 가치가 높은 마을로 새롭게 탈바꿈된다.

## 남산마을, 문화적 가치 재탄생

### 순창군, 17억원 투입 주택정비 안전확보 생활인프라개선

순창군 남산마을이 낡았던 이미지를 벗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마을로 새롭게 탈바꿈된다.

군은 "2018년 기초생활인프라지원강화사업"으로 남산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창읍 남산마을은 한때 순창읍에서도 규모가 큰 마을로 명성이 높았으나, 갈수록 줄어가는 인구와, 소재지와 동떨어진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조금씩 쇠퇴해져 가는 추세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조금 낡았던 분위기에서도 남산마을은 국가 지정 설치부인 권선문을 비롯한 전라북도 지정 신경준의 고지도, 신경준선생유지, 신말주선생의 심로계첩, 귀래정 등 주요 문화재가 자리잡고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남산마을을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군은 사업비도 최종 확보했다.

또 지난해 9월 마을구심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국비 10억과 군비 4억 3천만원, 자부담 등을 포함해 17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빈집철거, 단열 집수리, 재래식화장실 정비 등 주택정비와 위험지구 노후축대 석축쌓기, 옹벽설치, 가가호호 무선방송 설치 등 안전에 주안점을 뒀다.

또 마을회관 개보수, 진입로정비, 골목길 삼지창차장조성, 노후 불량시설 철거 등 생활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군은 1월중에 석면조사 용역과 주민의견 수렴, 현장조사를 통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3월에 세부설계 용역발주, 5월에는 사업입찰 공고, 6월부터는 본격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 서화중 농촌주거계장은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마을, 비워지는 농촌에서 채워지는 농촌마을로 바꾸는 게 이 사업의 추진배경과 취지"라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문화와 역사, 관광이 어우러진 가치 있는 남산마을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금연구역 홍보

앞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에서는 흡연을 절대해선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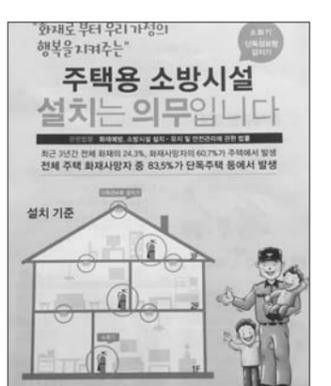
이에 따라 임실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개정된 점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경계면에서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소의원 관계자



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만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가 화재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주택화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중요하며 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8년 총 화재건수는 186건으로, 전년 대비 5.1%(9건) 증가했으며, 이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31.7%(59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발화 요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87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도울 수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터넷, 대형마트, 소방기구판매점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한달에 한 번씩 흔들어서 관리하면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배터리는 주기적(10년)으로 교체해주면 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노인구강건강관리 실시

남원시보건소는 동절기 경로당 어르신에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도통동 낙현마을을 시작으로 31일까지 39개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절반가량이 다수 치아를 상실해 씹기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치아건강상태가 열악하여 이에 따른 구강질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보건소에서는 치과 의사, 치과위생사로 구성된 구강보건팀이 경로당을 방문해 올바른 칫솔질 방법, 틀니관리요령을 교육하고, 뿌리충치 및 시린 이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및 틀니세정제 등 구강위생 용품을 배부한다. 지속적인 노인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치매안심과 방문보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